

인천대교, 바다를 수놓은 한국의 새 랜드마크

대한민국을 대표할 세계적인 '랜드마크(Landmark)'가 인천에 들어섰다. 인천대교는 '한국의 관문'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길이 21.38km의 해상 교량으로 세계에서 7번째로 길다. 인천대교는 웅장한 규모와 아름다운 외관 뿐만 아니라 최첨단 기술이 총동원된 명실 공히 '세계 최고'의 다리이다. 글 임동근 기자 · 사진 김주형 기자



인

천국제공항에서 영종도 남동쪽 해안도로를 따라 이동하자 이내 갯벌이 드넓게 펼쳐지고, 갯벌 뒤쪽의 바다 위로 선이 유려한 길고 가느다란 구조물이 시선을 붙잡는다. 구조물의 부드러운 굴곡을 따라 시선을 이동시키자 아스라한 끝부분에는 고층 빌딩들이 들어선 인천송도국제도시가 자리해 있고, 그곳에서 왼쪽의 해안가로는 송도유원지를 상징하는 동그란 관람차가 시야에 들어온다.

이렇게 바다 위를 미끈한 곡선으로 장식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사이의 바다를 곧바로 잇는 인천대교다. 지난 10월 16일 개통식을 치르고, 19일 자정을 기해 드디어 '바다 위 고속도로'를 통해 자동차들의 운행이 시작됐다.

인천대교의 총 길이는 세계 7위인 21.38km, 해상 구간만 12.34km에 이른다. 다리 중간 사장교의 두 개의 주탑 사이(주경간) 거리는 800m이며, 주탑의 높이는 63빌딩(249m)과 맞먹는 238.5m, 10만급 대형 선박들이 통행하는 사장교 구간의 교량 상판 높이는 바다 수면으로부터 74m이다. 외국의 다른 사장교들과 주경간 거리를 비교하면 중국의 수통대교(Sutong Bridge)가 1천88m로 세계 최장이고, 인천대교는 홍콩 스톤커터교(1천18m), 일본 다타라대교(890m), 프랑스 노르망디교(856m)에 이어 다섯 번째이다.

시원스럽게 펼쳐진 갯벌과 바다, 주변 항구와 해안선의 풍경을 감상하며 왕복 6차선 다리를 달리자 10여 분쯤 지나 알파벳 'Y'를 뒤집은 모양의 거대한 주탑이 시야를 가로막는다. 주탑에서부터 다리 상판 양쪽으로 연결된 208개의 케이블이 파란 가을 하늘과 어우러져 아름답다. 자동차로 주탑과 주탑 사이의 공간을 지나자 바다 위에 설치된 거대한 설치 미술 작품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마저 든다.

인천대교의 개통으로 서울 남부 및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의 통행 거리는 기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보다 단축됐고, 이에 따라 통행 시간은 40분 이상 짧아졌다. 송도국제도시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는 15분이면 도착한다.

인천대교는 인천과 안양을 연결하는 제2경인고속도로와 시흥으로 연결되는 제3경인고속도로(2010년 완공 예정),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돼 수도권 교통은 물론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물류 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대교 건설에 따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제 효과가 생산 유발 312조 원, 부가가치 유발 128조 원, 고용 유발 48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직접 경제 효과도 생산 유발 3조8천9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1조5천163억 원, 고용 유발 4만8천 명으로 평가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크게 송도(면적 53km), 영종(면적 138km), 청라(면적 18km) 지구로 구성되어 있다. 인천대교는 삼각형을 형성하는 3개 지구 중 송도와 영종을 곧바로 연결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의 국제 업무·교류의 중심지이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도시로, 영종도는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관광·레저·물류 단지로 개발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대교 개통으로 양 지역 발전은 물론 추가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천대교는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다리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매료시켜 한국에 대한 강한 인상을 심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1 '바다 위 고속도로'로 불리는 인천대교 통행로는 일반 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5천500원, 경차는 2천750원, 17인승 이상 버스와 10t 미만 화물차는 9천400원이다. 2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길이 21.38km의 해상 교량으로, 송도국제도시에서 출발하면 인천공항까지 15분이면 도착한다.



한국의 랜드마크, 세계적 관광 명소 부상 기대

독보적인 신기술로 건설된 인천대교는 훌륭한 관광 상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거나 경유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좋은 구경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영종대교를 이용했던 외국인들이 인천대교를 통해 이동함으로써 경기 남부, 충청권의 다양한 관광지도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오는 2014년까지 인천대교를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나 호주 시드니 하버브리지와 능가하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월미도, 연안부두, 남항부두, 아암도해상공원, 청라산 등 5곳에는 인천대교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 공간을 만들고, 인천대교의 영종도 진입 구간 주변인 운서동 해변에는 해상 잔교 형태의 문화 및 워낙 단지도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관광공사도 인천대교와 연계한 환승 관광, 야간 관광, 신혼여행 등의 신상품을 개발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일본, 중국권, 동남아 지역 관광객 1만5천 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 입국하는 외국인들도 대부분 이곳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인천대교의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3 인천대교(주) 김수홍(50) 대표는 “인천대교가 대한민국 토목 기술의 역사를 다시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인천대교(주) 김수홍 대표 인터뷰

인천대교 건설은 4년 4개월간 진행된 대공사였다. 국내 최장이자 각종 첨단 기술이 투입된 세계 최고의 다리이다. 인천대교(주) 김수홍(50) 대표를 만나 인천대교 건설의 과정과 뒷이야기를 들어봤다.

1. 인천대교 완공이 갖는 의미는?

인천대교를 이야기할 때 ‘길이가 세계 몇 번째’라는 점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인천대교는 세계의 어떤 다리도 따라올 수 없는 진정한 세계 최고의 다리이다.

길이로 교량의 우수성을 따지는 시대는 지났다. 길이를 자꾸 부각시키는 것은 우량 어린이 선발대회에서 걸모습만으로 평가해 비만 어린이를 뽑는 것과 같은 일이다.

인천대교는 길이로는 세계 7번째지만 기술 수준이나 외관에서는 세계 최고이다. 이를 인정해 영국 건설 전문 주간지인 ‘컨스트럭션 뉴스’는 인천대교를 ‘세계의 경이로운 10대 건설’ 중 하나로 선정했다.

실제로 원천 기술에서 세계 기록을 깬 것이 많다. 신공법을 끊임없이 도입해 공사 기간을 엄청나게 단축했다. 사우디, 러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도 찾아와 수의계약을 맺고 우리 기술을 수입하겠다고 했다. 한국 토목 기술의 본격적인 수출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인천대교는 대한민국 토목 기술의 역사를 다시 쓴 것이나 다름없다. 인천대교의 완공은 순수 국내 기술이 역사에 남을 기록을 ‘기네스북’에 올린 것과 같은 것이다. 앞으로는 사람들이 이 점을 기억했으면 한다. 인천대교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2. 인천대교는 어떻게 건설됐나?

인천대교 건설을 계획할 때 세 가지 목표를 세웠다. 아름다운 다리, 튼튼한 다리, 통행료가 저렴한 다리를 짓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가 아름다워야 하고, 시공 능력이 우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 동안 건설사 위주로 개발돼 온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관행에서 벗어나 시행사와 시공사를 분리했다. 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자 결국 순수 투자자들이 뛰어들었고, 이런 새로운 사업 모델로 성공을 거뒀다.



4 인천대교 톨게이트 옆에 있는 교통서비스센터. 교량에 설치된 영상 촬영 차량 감지기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로 인천대교의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5 이명박 대통령이 10월 16일 개통식에 참석한 후 인천대교를 걸으며 둘러보고 있다.



“인천대교는 기술 수준이나 외관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인천대교는 ‘세계의 경이로운 10대 건설’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토목 기술의 역사를 다시 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같은 사업구조는 단순히 교량을 건설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한국 건설 시장에 새로운 사업 구조와 금융 기법,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유로머니’가 뽑은 ‘2005년 올해의 최우수 금융조달사업’(아·태 교통인프라 부문)에 선정되고, 2007년 세계적인 건설 전문지 ENR의 ‘올해의 뉴스메이커 25인’에 내가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다.

3.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클 것 같은데.

250년 정도 영종도에서 살아온 뿌리 깊은 집안이다. 항상 인천과 영종도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왔다.

사실 인천대교는 아버지(김중식 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의 꿈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1960년대에 연륙교 건설을 처음 제안했지만, 군사적인 이유 등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래서 인천대교 건설이 남다르게 느껴진 것은 사실이다. 결국 아버지가 다하지 못한 일을 해내서 기쁘다.

4.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인천대교의 완성에 찬사를 보내지만, 인천대교는 아직 미완성이다. 인천대교의 완성은 통행료를 낮춰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기술적, 금융적, 상업적, 법률적 프로그램을 아낌없이 제공할 것이다. 통행료와 연계한 개발권 이야기도 나오지만, 개발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인천대교 통행료가 점점 인하되고 훗날 없어지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싶다. 그래서 인천대교의 완성된 모습을 꼭 보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봉사의 일환으로 최근 가족과 회사 직원들이 함께 성금을 모아 고아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계속 누군가가 이런 아름다운 기업 철학을 유지해 나갔으면 한다. R



바다 위를 수놓는 환상의 야경

하늘과 바다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어두워진 밤이면 인천대교는 환한 야경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하늘 높이 치솟은 주탑 2개에서 밝혀지는 조명은 인천 앞바다를 화려하게 수놓으며 보는 이들을 감동시킨다. 매끄러운 곡선의 다리 양쪽을 따라서는 노란색 가로등까지 촘촘히 설치돼 있어 밤 바다 위에 빛과 어둠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인천대교의 야경은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 월미도, 연안부두 등 곳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 연안부두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출항하는 선셋크루즈(현대해양레저)에 오르면 인천대교 아래를 통과하며 환할한 야경을 볼 수 있다.

인천대교 감상하고, 주변 관광지 돌아보기



팔미도, 개방된 '금단의 섬'

1 팔미도는 인천항에서 13.5km 남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섬이다. 팔미도라는 이름은 사주로 연결된 섬의 생김새가 여덟 팔(八) 자처럼 가운데는 높고 양쪽으로 경사가 진 데서 유래했다.

팔미도는 1903년 6월 1일 국내 최초의 등대가 들어선 곳이다. 그동안 등대지기과 해군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에게도 출입이 허락되지 않은 섬이었지만 올해 1월부터 인천시가 '인천방문의 해'와 세계 도시 축전 개최를 기념해 팔미도 관광을 허용했다.

팔미도 여행은 선착장에서부터 목책 계단을 따라 섬을 한 바퀴 돌면 끝난다. 세워진 지 정확히 100년 만에 새로운 등대에게 임무를 넘기고 은퇴한 팔미도 등대는 깜찍한 원통형이다. 옛 등대 뒤로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새 등대가 자리하고 있다. 새 등대에 마련된 등대박물관은 인천상륙작전 때 상황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디오라마 영상관, 등대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는 항로표지 역사관으로 꾸며져 있다. 또 박물관 옥상에는 서해의 시원스런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자리한다.

등대에서 선착장까지의 길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이어지는 트레킹 코스이다. 코스 주변으로는 때 묻지 않은 자연이 보존돼 있다. 수령이 50년을 넘은 해송과 칩, 담쟁이덩굴 등 식물 100여 종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2 1888년에 세워진 한국 최초의 서구식 공원인 자유공원은 인천항과 인천대교가 발아래 내려다보이는 응봉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자유공원에는 인천상륙작전의 시발이 된 월미도를 바라보는 맥아더 장군의 동상과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탑 등이 있다. 맥아더 동상 밑으로는 인천에 거주하던 영·미·러·일본인들의 사교장으로 이용됐던 '제물포 구락부'가 자리한다. 동쪽에는 1908년 준공한 홍예문과 1890년 설립된 중세풍의 석조 교회당인 대한성공회 인천 내동교회가 있다.



자유공원, 한국 최초의 서구식 공원

3 월미도 바닷가에 서면 늘씬한 인천대교의 측면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주탑 2개와 양쪽으로 뻗어나간 수많은 케이블이 이룬 경관이 아름답게 느껴진다. 인천대교를 감상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다. 월미도는 인천은 물론 서울 및 경기도의 가족 단위 여행객과 연인들이 바다의 낭만을 만끽하기 위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이다. 예쁜 바닷가 카페가 자리해 연인들을 부르고, 수십 개에 달하는 화센터에서는 해산물을 즐길 수 있다. 월미도에서 유람선에 오르면 영종도와 작약도, 인천대교, 연안부두를 거쳐 월미도로 되돌아온다.



월미도, 인천대교 감상의 명당

4 소래에서 생산된 소금을 수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인선은 1995년 영업을 중지했다. 그러나 인천과 수원을 잇는 협궤열차가 지나다녔던 철교는 길이 120m가량이 남아 옛 정취를 맛볼 수 있도록 한다. 주말이면 새우, 꽃게, 민어, 농어, 낙지 등 다양한 해산물을 사고팔거나 맛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다. 소래포구 상류에는 인천시가 갯벌과 폐염전을 이용해 2004년 개장한 '소래습지생태공원'이 있다. 습지와 초지, 염전, 전시관 등이 들어서 있는데 천천히 둘러보면 3~4시간이 걸린다.



소래, 포구의 낭만이 '물씬'

5 영종도에서 남쪽으로 불과 500m 떨어져 있는 무의도는 인천대교의 경관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하기 좋은 섬이다. 큰 섬은 대무의도, 작은 섬은 소무의도이고, 무인도인 실미도는 북서쪽으로 이어져 있다. 여행객들은 대부분 하나개해수욕장이나 큰무리(실미)해수욕장으로 향한다. 섬에서 가장 큰 갯벌이라는 뜻의 하나개는 길이 1km의 해변이 있는 곳으로 썰물 때면 갯벌이 100여m 너비로 드러난다. 밀가루처럼 고운 모래가 깔린 갯벌 앞으로는 시원한 바다가 펼쳐진다.



연인들을 부르는 섬, 무의도



인천에서 만나는 중국 풍경, 차이나타운

6 인천역 맞은편에 위치한 인천 차이나타운은 화교 800여 명이 중국 음식점과 기념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곳이다. 인천역 광장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중국 웨이하이(威海) 시가 인천 중구에 기증한 화려한 패루(牌樓)가 방문객을 반긴다. 거리에는 중국 공예품과 액세서리, 중국식 외출복인 '치파오', 전통차, 골동품 등 중국 본토에서 들어온 흥미로운 물건들이 즐비하다. 붉은빛 화려한 분위기로 치장된 거리를 따라 걸다 보면 중국의 어느 도시에 온 듯한 기분이 든다. 화교 학교인 중산학교의 중국식 뒷담에서는 유비, 관우, 장비, 조조 등 '삼국지'의 주요 인물들과 명장면을 160면에 그린 150m의 대형 벽화를 볼 수 있다. '삼국지'를 소개하는 설명도 담벼락에 인쇄돼 있다. 이곳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단연 중국 요리이다. 자장면, 짬뽕, 수제 만두, 월병, 꼬치구이 등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중국 식당들이 도열해 있다. 한국 최초의 자장면 집이었던 '공화춘' 건물도 흥미롭다. 차이나타운 남동쪽으로는 100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린 듯한 분위기의 거리가 이어진다. 르네상스풍의 '일본 제1은행', 프랑스 건축물처럼 발코니와 지붕창이 있는 '일본 18은행', '인천 개항장 근대 건축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본 18은행'이 있다. 1897년 세워진 고딕 양식의 답동성당도 인근에 있다.